

목 차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계백장군 동상 건립과정 및 현황	2
1) 계백장군(?~660)	2
2) 계백장군 동상 건립	2
3) 계백장군 동상 조망상황 및 문제점	4
3. 해외사례	6
1) 오이젠장군 기마상(오스트리아)	6
2) 앙리 뒤프르 장군 동상(스위스)	7
3) 쾰른 승마동상(독일)	7
4) 시사점	8
4. 계백장군 동상승상이 내포하는 문제점	9
1) 조망각 변화로 인한 조망의 어려움	9
2) 작품성 훼손	10
3) 주변지반 침식에 따른 동상 훼손 우려	10
5. 부여군 대응방안	11
1) 계백장군 동상의 안전진단 및 보수	11
2) 조경수(섬잣나무)의 전지	12
3) 동상 주변 회양목 제거 및 경계석 보수	13

1. 기마상 이론적 개관

1) 기마상의 유래와 기능

- 기마상(equestrian statue)은 대개 제왕이나 정복자의 용맹성이나 위엄을 보여주는 형상이 일반적으로 말과 마차가 보편적인 교통수단이 된 고대 로마에서부터 중세 근대로 이어지며 서양미술의 스케일을 확장시켜주는 요인이 된다.
- 특히, 17세기 절대적인 왕권시대에 성행했던 바로크미술(Baroque art)은 과장되고 동적이며 남성적 경향의 미술향식이 특징이다. 이시기에는 전쟁과 왕권을 미화하도 찬양하기 위해 피라미드, 컬럼, 기마상, 개선문, 대리석과 청동제의 흉상 등이 정치선전에 활용되었다.

2) 기마상의 유형

- 기마상은 주인공의 용맹성이나 위엄을 과시하는 형상물로 이러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말과 승마자의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형상이 일반적이지만 미술사조의 표현 방식에 따라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 1유형 : 힘차게 달리는 모습이나 당당하게 행진하는 모습, 질주하기 전 앞발을 모두 들고 우렁찬 말울음을 내는 듯한 모습으로 서양의 기마상으로는 알프스산맥을 넘는 나폴레옹(회화), 태양왕 루이 14세 기마상, 카를대제 기마상, 니콜라스 1세의 기마동상이 있으며 국내의 예로는 장수가 힘차게 질주하며 말 위에서 활시위를 당기는 을지문덕(고구려 장군총의 벽화), 이성계장군의 기마상을 들 수 있다.
- 2유형 : 1유형과는 대조되게 당당하게 행진하는 모습은 앞발 한쪽은 들어 올린 채 다른 한발은 굳세게 땅을 딛고 있는 모습으로 뒷발은 걷는 상태에서 두발을 모두 딛고 있다.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스페인 페레페 3세, 바츨라프, 몽고의 징키즈칸, 토도장군 기마상이 있다.



-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동감과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반드시 과감한 동작을 취하지는 않으며 당시 유행하던 미술사조나 의도에 따라 유형을 선택하고 있으며 동일한 인물을 표현함에 있어서도 다른 유형을 채택하고 있다.
- 또한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말꼬리의 방향에 따른 논란(말꼬리를 내리면 후퇴하는 의미)은 의미가 없음을 알 수 있다.
- 이러한 유형의 형태는 실제 말을 모델로 하여 동작을 묘사할 수 없는 창작 여건에서 후대에 새롭게 제작되는 기마상의 전범이 되고 있다.

3) 국내기마상

○국내의 기마상이 보편적이지 않은 이유는 서양이나 중동, 몽고와 같은 지역에 비해 말이라는 수단의 활용이 빈번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에 따른 마구나 말의 회화적 표현의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만 하더라도 산악지형인 탓에 말이라는 수단이 실제 없었으며, 말을 탄 존재는 신 또는 켄타우로스(반인반수)로 묘사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형상의 이유로 말의 이용이 제한적이었으며 이에 따라 말의 회화적 입체적 표현이 미흡하게 이루어졌다.

○그동안은 말의 표현력 부족 등의 이유로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인물을 소재로 하는 지역의 스토리텔링에 구체적인 형상을 통해 감흥을 상승시키기 위하여 동적인 유형으로 조성되고 있다.

2. 해외사례

- 유럽의 문화 선진국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동상을 세웠으며, 동상은 국민들의 자긍심을 키워주고 역사를 교육시키는 한편의 교과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음
- 예를 들면 프랑스의 잔다르크 동상은 수많은 청소년들이 잔다르크의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면 국토순례 대행진을 시작하는 곳임
- 따라서 해외사례를 통하여 동상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나 도시공공디자인 측면에서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

1) 오이겐장군 기마상(오스트리아)

- 오이겐 장군의 기마상으로 프랑스에서 오스트리아로 망명하여 황제군의 총 사령관이 되어 오스만투르크 족을 물리쳐 빈을 구한 공을 인정하여 동상을 세움

- 오이겐 장군 기마상은 신왕궁 호프부르크 왕궁에 있으며 관광객들의 볼거리로 제공되고 있음
- 이도 부여군의 동상처럼 웅장하고 장엄한 느낌의 장군을 표현하였으며 말 또한 역동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음



(그림 13) 동상 측면



(그림 14) 동상 정면

2) 앙리 뒤프르 장군 동상(스위스)

- 뒤프르는 나폴레옹 시대의 몰락 후 스위스의 통일을 이룩한 군사 영도자로 전투 중 단 한번의 패배도 없이 오스트리아-프로이센 세력을 무력으로 축출하여 분열된 스위스를 통일하고 독립을 수호한 스위스의 장군임
- 뒤프르 동상은 부여의 계백장군과 비슷하게 오른손을 들고 전쟁터로 나가는 모습으로 제작되었으며 패장의 모습이 아닌 승장의 모습을 묘사한 것임



(그림 15) 앙리 뒤프르 장군 동상(스위스)

3) 쾰른 승마동상(독일)

- 쾰른의 동상으로 라인강 주변 공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상의 모양이 부여 계백장군 동상의 위용과 말의 모습 등이 비슷함



(그림 16) 정측면



(그림 17) 후측면

4) 시사점

- 유럽 동상은 일반인이거나 관광객들이 보았을 때 동상의 위용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마상의 경우 말의 자연스러운 움직임 표현하였음
- 부여의 계백장군도 자연스러운 기마상과 장군 동상의 모습을 표현한 것은 유럽의 사례와 비슷하며 기단과 동상의 균형미 또한 우수하게 제작된 것으로 나타남
- 유럽의 동상은 일상생활에 밀착되어 있는 거리, 광장, 공원 공공장소에 세워진 역사인물로 조망하는 관광객이나 일반인에게 역사적 교훈을 주

고 동상주인공의 삶에 대한 일반적인 역사적 평가까지도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게 됨

- 부여의 계백장군 동상은 기단과 동상의 균형미를 유지하고 있으며 장군과 기마상의 자연스러운 움직임 또한 잘 표현이 되어 유럽의 동상과의 비교에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주변에 조경수가 없어 모든 곳에서 조망이 가능한 유럽의 동상과는 달리 일부에서는 조망이 어려운 계백장군 동상의 조망권 확보를 위한 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위인들의 업적을 기억하고 도시곳곳에서 문화와 역사에 대한 기억으로 도시의 정체성을 형성함에 따라 부여의 계백장군 동상도 하나의 건축물이 아닌 부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민에게 자긍심과 애郷심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며 이에 따라 지속적인 보존과 관리가 필요함

3. 계백장군 동상 건립과정 및 현황

1) 계백장군(?~660)

- 계백장군은 백제 말기의 장군으로 홍수, 성충과 함께 백제의 3충신으로 불리며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나라에 대한 충성을 끝까지 지킨 충신의 표상으로 알려져 있음
- 계백장군은 나당연합군의 침공으로 위기에 몰린 나라를 구하기 위해 죽기를 각오한 군사 5,000명을 이끌고 황산벌에서 신라의 김유신이 이끄는 5만의 군사를 맞아 네 차례 격파하였으나 끝내 장렬히 전사하였음
- 계백은 전장에 나가기전 이미 나라를 보전하기 어렵다는 것을 직감하고 '살아서 적의 노비(奴婢)가 됨은 차라리 죽음만 같지 못하다'하여 자기의

처자를 모두 죽여 비장한 결의를 보이는 등 충절과 용기가 빛나는 장수로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음

2) 계백장군 동상 건립

- 계백장군 동상은 1966년 당시 김종필 국회의원과 월탄 박종화 선생 등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백제의 혼을 되살리는 차원에서 동상건립이 필요하다는 지역민들의 염원을 담아 군청 로터리에 원지름 35m의 면적에 전체높이 9.3m의 크기로 건립되었음
- 1966년도에 제작된 계백장군 동상은 국내 첫 기마상으로 당시 부여중학교 미술교사인 故 윤석창선생이 제작하였으며 삼지창(길이 5~6m)을 움켜지고 장군이 탄 말의 꼬리가 곧추세워져 있었음
- 그러나 형상과 규모가 작고 장군동상 주변에 고층 건물이 들어섬에 따라 상대적으로 동상의 모습이 초라하게 되어 장군의 위풍을 잘 나타내지 못하고 주변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새로운 동상을 만들자는 의견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지역개발에 따른 교체여론이 일었음
- 이에 따라 1979년 서울대 미대의 故 김세중 교수가 만든 동상으로 현재의 모습으로 교체되었으며 장군 동상에는 이전과 달리 삼지창이 없으나 대신 오른손을 들고 서 있으며 말의 꼬리 또한 내리고 있어 장군의 위풍을 잘 나타내고 있음



(그림 18) 故윤석창 선생 제작 동상



(그림 19) 현재 계백장군 동상 모습

- 계백장군 동상은 동상높이 4.20m, 기단높이 5.12m으로 총 9.32m이며 총 넓이 3.2m, 좌대폭은 2.30m이며 동상 아래쪽에는 당시 김종필 국회의원이 쓴 동상비문이 적혀져 있음



(그림 20) 계백장군 정면



(그림 21) 동상 비문

- 계백장군 동상은 부여군청 로터리에 건립되어 시내권 및 시외에서 들어오는 차량에서 조망할 수 있으며, 야간조명의 연출로 인해 주변 수목 조경과 더불어 아름다운 야경을 연출함

4. 계백장군 기마상(동상)의 예술적 고찰 및 가치

1) 예술적 고찰

- 본래 초기작(윤석창 작)과 기존설치 작(김석중 작) 모두 기마상의 2번째 유형을 채택하고 있으며 최근 논산에 건립된 기마상이 1번째 유형으로 볼 수 있음
- 두 기마상의 차이는 돌진을 위해 움츠리고 있는 공격적인 자세의 말과 삼지창을 든 계백장군의 자세(병장기를 들거나 손을 들어올리는)와 인물 묘사에서 찾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표현방식과 말과 인체의 비례와 같은 기마상의 스케일(규모)과 균형 면에서도 찾을 수 있음
- 무엇보다 두 기마상의 차이는 표현하려는 주 의도인 용맹성과 위엄이라

는 두 가지 요소의 우선 비중이 무엇인가에서 찾을 수 있으며, 전작은 용맹성을 후작은 위엄을 다루고 있음

- 이러한 의도를 표현하기 위해 전작은 팽팽한 긴장감을 주는 구도를 택하고 있고 계백장군이라는 주인공의 부각을 위해 말의 비례가 작게 묘사하고 있으며 말의 근육질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과장성이 가미되어 말이 빈약하게 보이면서 전체적인 서스펜스를 증대시키고 있음
- 반면 후작의 경우 전작에 비해 상당히 사실적인 묘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말과 승마자인 계백장군의 체격을 당당한 스케일로 구성함으로써 안정적인 구도와 장군으로써의 위엄을 극대화 시키고 있음
- 결국 위촉즉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용맹성을 나타내는 전투장면(최후의 일전에서 대장군까지 전투에 참여)의 포착과 백제국의 수장으로써 적군의 소년장수인 관창을 포획하고서도 2번이나 되돌려 보냈던 내면적인 덕장의 위엄까지 나타내는가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2) 계백장군 기마상(동상)의 가치

- 기마동상이 전무하던 국내에 기마상의 효시를 이룬 초기 계백장군 동상은 그 자체만으로도 창작의도를 차지하더라도 미술사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음에도 직접적인 연고나 그 존재를 확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초등학교 후원으로 옮겨져 있기에는 아쉬움이 많음
- 사례에서 동일한 인물의 기마상 묘사가 다르게 이루어지는 바와 같이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두 계백장군 동상의 적합한 용도를 찾아내는 방안이 중요함
- 표현방식(동적, 사실적)이나 작품의 스케일 및 전반적인 자세를 감안 할 때전작의 경우 계백장군의 존재를 부각하는 장소에 이전하여 설치하며, 후작의 경우 기존 장소에 존치하는 방안이 타당함

- 다만 지속적으로 우려되는 문제(이후에도 제기 될 이의)를 잠식시키기 위해서는 계백장군의 캐릭터 정립(계백장군은 위상 및 직제 위치, 당시 연령대)와 당 시대의 말 품종 및 마구(병마), 갑옷 등 병기의 윤곽이 정립되어야 함

*예 : 삼지창의 경우 주로 사용하던 창이 장수인지, 병사인지 여부, 자루의 크기 및 창의 크기 등 제원, 보병과 기마병 용의 차이와 같은 자료가 확립되어야 하며, 역사적인 사실을 회화 또는 조각으로 재현하던 화가의 경우 역사학자에 버금가는 역사자료 및 금석학 등 해석능력을 갖추었던 점을 상기하여야 함

5. 동상 반환 제안

1) 동상 반환 여부

-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동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예술적 가치보다는 지역의 정서적, 역사적 가치 측면에서 동상 반환이 의미가 있음
- 그러나 현 동상과의 상충 문제 때문에 이전 위치, 시기, 사후관리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요구됨

(1) 이전 위치

- 동상과 같은 상징조형물 건립 시 중요하게 고려되는 상징성, 접근성, 연계성, 경관성, 수익성, 실현성의 요소를 적용한 입지적 측면과 기존 동상과의 상충 문제를 고려한 위치를 고려
-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단독으로는 부여읍내에 위치를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른 대안으로 사비문묘 공간을 활용한 계백장군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과 백제 오천결사대 충혼탑과 연계하여 위치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2) 시기

- 반환 시기에 있어서 역사성과 시의성을 고려하여 2014년 부여군 개군 100주년 및 갑년 백제문화제 개최에 맞추어 추진하는 것을 제안
- 특히 갑년을 맞는 백제문화제 개최 시 행사 프로그램으로 계백장군 동상 반환을 구성하여 화제성을 유발함

(3) 동상 활용방안

- 일반적으로 동상의 경우 상징조형물의 대표적인 형태로서 상징조형물이 가지고 있는 기능인 심미적기능, 지표의기능, 공간조절의 기능, 실용적기능, 예술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
- 특히 계백장군 동상의 경우 역사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진 인물으로써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지역의 Landmark sign symbol로 활용이 가능함
- 계백장군이라는 인물을 활용한 충절과 관련된 교육의 소재로 활용하여 교육의 메카로 조성

2) 동상 반환 효과

(1) 인문·사회적 효과

- 충절의 대표적인 인물인 계백장군 동상의 반환을 통해 지역정체성 확립과 지역주민의 자부심을 다시 한번 고취시키는 계기가 됨
- 또한 계백장군이라는 인물을 통해 전국에 부여군을 알리는 계기를 만들어 지역이미지 확립의 효과가 있음
- 계백장군 동상을 활용한 충절의 이미지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장소로서의 지역이미지 확립

(2) 경제적 효과

- 계백장군 동상 반환을 통한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는 동상 자체만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움
- 그러나 계백장군 동상 반환을 통한 지역이미지 개선을 통한 간접효과와 지역 교육 자원으로 활용을 통한 방문객 유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계백장군 동상을 활용한 주변 상업시설 설치를 통한 계백장군 기념품 판매와 지역농산물 판매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